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5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5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 새로운 나를 맞이하다.

신입직원교육 (05.11)

“모든 새로움은 그에 임하는 우리의 심기가 새롭고, 그 속에 새로운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주어지는 새로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_신영복 저자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입직원은 그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심기 또한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게 되겠죠. 그 새로움과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함께하고자 지난달부터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움’과 ‘나다움’을 사이에 두고,

5/11(토)에는 9층 회의실에서 올해 2번째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티타임을 시작으로 아이스 브레이킹(함께 초상화 그리기, 나 소개하기), 병원장님 인사말, 병원소개의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필수교육을 받았으며, 비전카드에 ‘나의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소담소담 전체 소감을 나누며 단체사진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5.16)

운전면허취득을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시험은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순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김○○님은 필기시험 합격했었고 다음단계 장내기능시험 도전했으나 앞서 2번 떨어지고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표현은 크게 안하셨으나 기분이 좋으신 듯하여 저도 기뻤습니다. 마지막과정인 도로주행이 남았는데 꼭 한 번에 합격하길 기원해봅니다.





휠체어스쿨 (05.09)

프로그램에 참여도에 따라서 2개 조로 나뉘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참여하신분들은 휠체어 밀기 손의 위치 제동방법 등 휠체어 타실 때 기본적 동작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 참여자분들은 퇴원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어 휠체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분리하여 청소하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들을 듣고 퇴원이후에도 휠체어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

5월에는 간호팀 교육으로,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침상자세에 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로 인해 외출, 외박이 많았지만 슬기로운재활생활 교육을 참여하기 위해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병실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침상자세와 트랜스퍼, 낙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며 참여자 뿐만 아니라 간병 중인 보호자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상자세, 트렌스퍼, 욕창·감염관리
간호팀 김경희 부팀장 (05.08)

재활생활

간호팀 강의 후 영양팀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이 필요한 이유와 고령 및 노인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수 있는 방법 등 영양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심으로써 참여자 및 보호자의 식습관 관리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영양관리
영양팀 김정희 팀장 (05.08)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통해 장애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참여자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장애 이후 직장, 결혼, 육아 등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본인의 장애 수용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를 겪는 등 장애수용을 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해 주시며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긍정의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장애 이해와 수용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 (05.22)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5.10)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정○남, 정○찬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채○주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자립활동과 꾸준한 출석으로 시작한 참여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만나서 반갑습니다' (05.02)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과 함께 첫 번째 토요일, 웃음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며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즉석 노래자랑 코너를 마련하여 참여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신나는 음악을 통해 함께 리듬을 타며 열정, 긍정 에너지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원무팀
김 대 용 파트장

임명장 전달식 (05.02)

원무팀 김대용 파트장이 인사발령 공고에 따라 5/1일부로 승진이 발령되었고,
5/2일 임명장 전달식을 가져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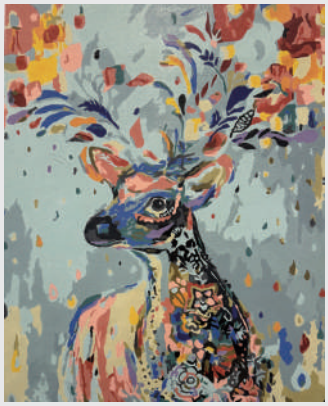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 참여자가 그린
유화그림 전시 (05.21)



한동안 비워져있던 6층 외래치료실 화장실쪽 벽면에
일생재활센터(낮병동) 참여자들의 유화그림을
전시하였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참여자 대부분은
사고이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의존적인 태도와
한 순간 달라진 삶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시간에
여가활동의 목적 등으로 유화그리기를 하면서
온전히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하여 잡념은 사라지고,
완성된 그림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은 줄어들고 자존감은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화그림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니,
바쁜 업무이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전시된 유화그림과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보시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5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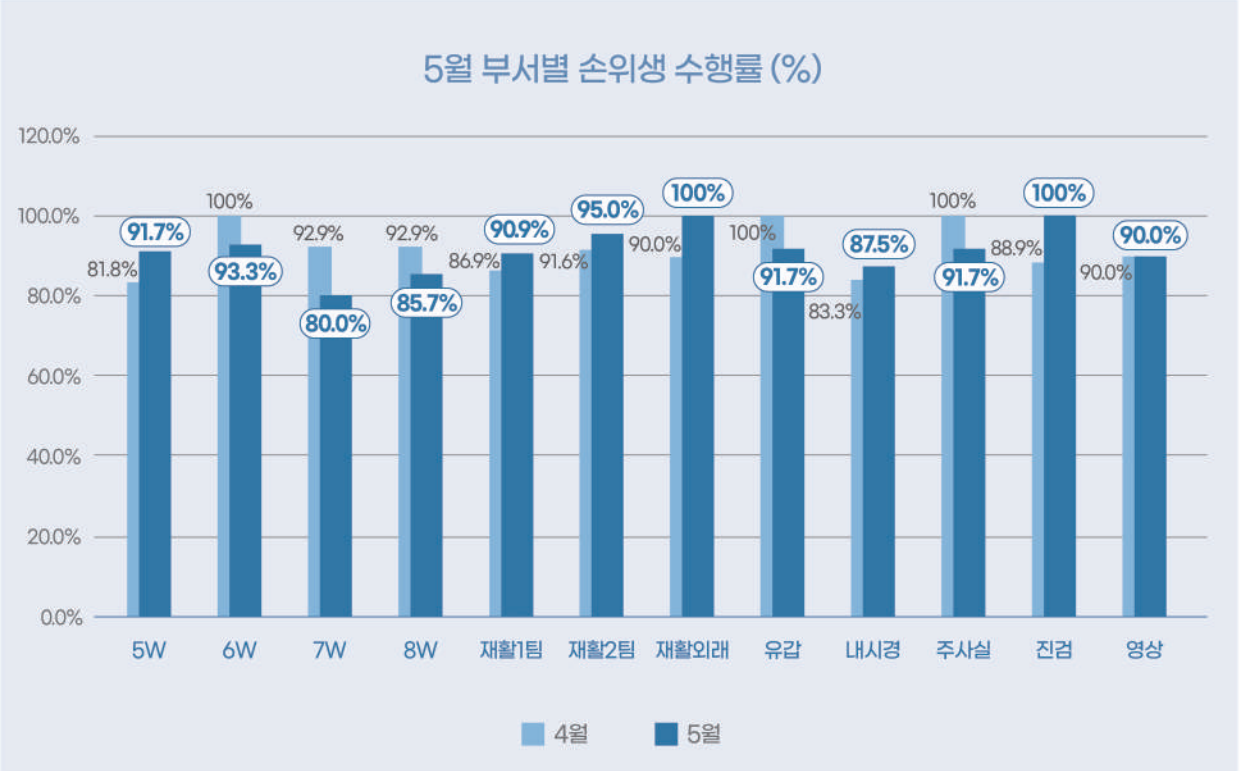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52	138	90.8%	**- 0.1%**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사회복귀지원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4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살펴보다

회복기로 입원한 윤OO님은 뇌출혈 발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단하고 본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참여자 및 언니와 사회사업상담을 진행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신청을 도와드림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시상담을 진행하여 윤OO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윤OO님은 발병 후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타인과 만남을 극도로 기피 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은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취미가 없던 윤OO님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던 첫 프로그램입니다. 입원부터 퇴원 전까지 꾸준하게 월 1회 참여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직접 소품을 만듦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OO님은 이외에도 손뜨개 프로그램 털뭉치 공방 및 다양한 본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활의지를 다지고, 타인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사회복귀 준비, 떨리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가다

윤OO님은 언어·인지치료 지속과 향후 재취업을 목표로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퇴원 상담을 통해 언니와 함께 해운대구 자택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한 후 해운대구 지역사회자원을 탐색하였습니다. 참여자 주소를 해운대구로 이전하여 '해운대에 On 보살핌 사업'을 연계하였으며 희망케어박스에 선정되어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 일상재활센터를 이용하며 월 1회 사회사업팀이 진행하는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도 참여하면서 치료 활동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해운대한마음스포츠센터를 연계해드렸으며 요가와 수영을 다니며 건강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공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재취업에 도전하다

윤OO님은 본원 일상재활센터 이용 후 본원 재활외래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갔으며 사회사업 수시상담을 통해 재취업이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업 상담 후 맞춤형 일자리, 관심 분야를 탐색하며 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학습 능력,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며 재취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어장애와 신체적으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직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며 그 결과 단시간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외부 활동은 물론 재취업이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윤OO님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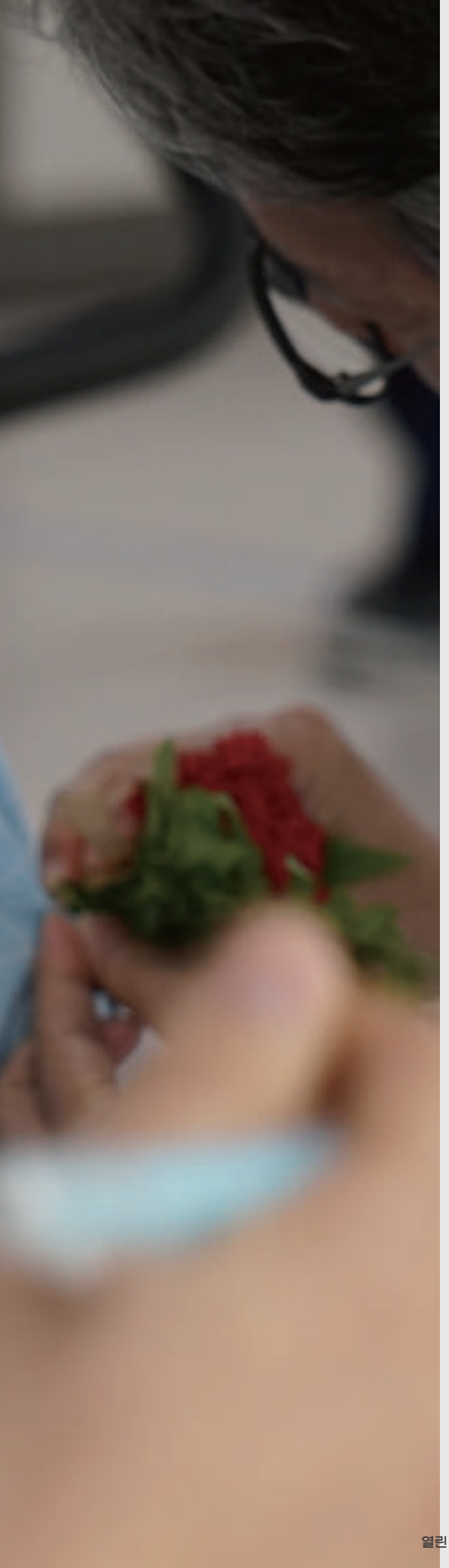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여성</td><td>56세</td><td>급여 1종</td><td>뇌출혈</td><td>2022. 08. 13.</td><td>2022. 09. ~ 2023. 01.</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2인 가구(참여자, 언니)
■ 주보호자 : 언니</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발병, 언어장애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감
■ 언니의 심리·정서적 지지도 매우 높음</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보장보험 있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 주거환경 : 승강기 있으며 참여자 기능상 주거환경개선 필요없음</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우울감으로 인한 심리정서지원
■ 의료급여 1종으로 상향 신청
■ 퇴원 후 언어·인지치료 지속
■ 재활치료 종료 후 재취업</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언니 자택
■ 치료계획 : 일상재활센터, 재활외래
■ 이동수단 : 대중교통
■ 건강증진 활동
■ 재취업</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정서지원 : 이벤트프로그램,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손뜨개 프로그램 털뭉치공방</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해운대에 On 보살핌 사업(희망케어박스)
■ 의료급여 1종 변경 신청지원
■ 한마음스포츠센터
■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지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가정의 달 기념행사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식 (05.08)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입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병실 및 재활 치료실에 방문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활의학과 담당 주치의가 참여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이건 우리 마누라가 받아야지'하며 간병 중인 가족에게 건네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감사한 시간에 대한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셨지만 내년에는 가정에서 가족과 더욱 마음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행복한 어버이날 마무리했습니다.



나만의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05.02)

5월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빙고게임으로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가 직접 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바르고 생화 카네이션으로 꾸미며 완성한 카네이션 케이크를 가족에게 전달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소통하고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편백의 효능을 알아보고 직접 바느질도 하며 경추 편백베개를 완성했습니다.

목이 불편한 참여자, 평소 베개가 없어 이불이나 수건을 베고 주무시는 보호자, 베개가 하나 더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편백 큐브의 향으로 참여자, 보호자의 편안한 수면을 돕는 베개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편백큐브가 들어가는 경추베개 만들기 (05.30)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최철훈 파트장 (05.17)

우리는 가족입니다.
5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8W) 조준호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이원경 간호사


영양팀 문근희 영양사


재활간호팀(5W) 오예진 간호사


심사팀 정이현 팀원


재활간호팀(8W) 박선정 간호사


건강증진팀 박보경 팀원


영양팀 서진호 팀원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가정환경평가 참여자 가정방문 (05.22)

사회사업팀과 퇴원 상담을 진행한 이OO 참여자의 안전한 주거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참여자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이OO 참여자는 척수병증으로 인한 경추 마비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자택 퇴원을 간곡히 희망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 후 자택 퇴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OO 참여자는 퇴원 후 요양보호사와 가족간병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계획으로 돌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추 마비로 인해 주거환경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참여자의 안전한 가정복귀를 위하여 담당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코치팀, 인테리어 업체가함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관, 화장실 경사대 설치를 권하였고, 화장실 입구가 좁아 문을 제거하고 자바라 혹은 여닫이문으로 교체하시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누워서 샤워하기를 희망하여 욕조 위에 판과 매트를 덮어 목욕 침대처럼 누워서 샤워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자문 후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나행동에서 진행하는 '혜임당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으셨지만 재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을 연결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나행동 사업진행경과보고 (05.08)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서 후원인 신혜선님 및 관계자 분을 전환홈에 모시고, 1/4분기 사업진행경과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다과시간을 마련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및 자그마한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건강검진권 후원 전달식 (05.23)

본원은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제16회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에 일상 Dream 건강검진권을 2매를 후원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계층에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본원 핵심가치인 '함께함'을 실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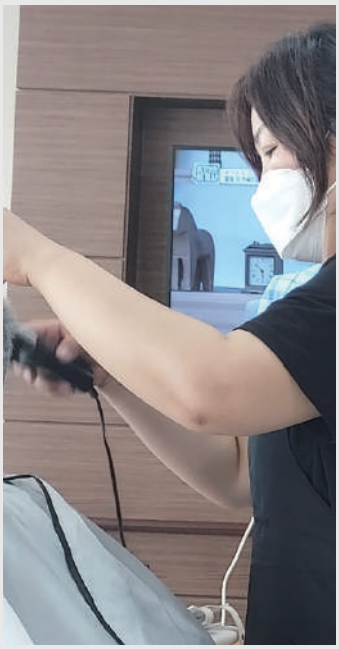


이미용 프로그램 (05.21 / 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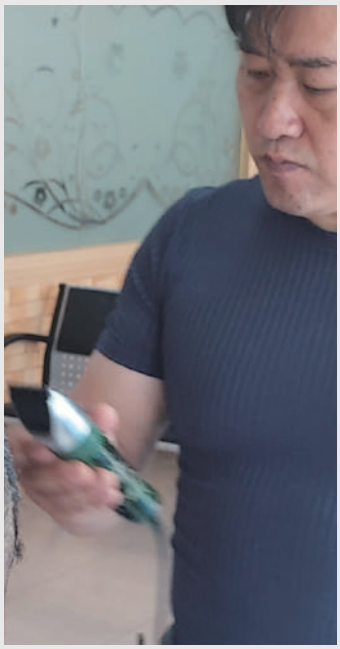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원봉사자께서 입원 참여자를 위해 매월 1회 방문해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이 이미용 서비스를 신청해주셨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5.08)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_장 폴 샤르트르

인생은 끝임 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며 지내게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 믹스커피 1봉이냐 2봉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2봉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과는...카페인의 힘으로 주방을 휘젓고 댕기고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위대함이란ㅎㅎ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점심 선택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남기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다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구구콘)을 받느냐 입니다.

금방 삶아 송송 썰어 낸 뜨끈뜨끈한 수육과,
치자물 예쁘게 입은 샛노란 오징어&고추튀김,
밭에서 쑥쑥 자란 섬유질 빵빵한 쌈 채소,
그리고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겉절이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식당 도착 전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구구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구콘이 쓸쓸하게 다음을 기약하며
냉동실에 찌그러져 있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 특식인거 사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또 다른 C를 어버이께 데꼬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역시, 인생은...B(Birth)와 D(Death)사이의 C(Cash)이다.



나행밥상 여섯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06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수육&보쌈김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정성을 담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5월의 특별 메뉴는 바로 '수육&
보쌈김치'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인 어버이날!

"맛나는 음식, 기대해도 되죠?"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며,

고민과 긴장감 속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은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름기 쫙~~~빠지고, 쫀득쫀득 식감을 살린 무수분 수육에
손맛과 정성을 가득 모아 돌돌 말은 보쌈김치, 그리고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쌈 채소에 우리의 마음을 살포시 담아 전해
드립니다.

음식에 담기는 정성을 시간으로 다 표현해 낼 수는 없지만,
뭉근히 오랜 시간 익히는 수육과 배춧잎 한 장 한 장 곱게 펴
소를 넣은 다음 예쁘게 갈무리한 보쌈김치는 들이는 시간의
값어치가 그대로 다 나타나는 음식입니다.

어버이께 잘 대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말 재주가 없어,
말로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음이 실로 안타깝지만,
마음을 다해 전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객후기

나눔의 가치, 글로 써도 충분합니다. (05.20)

가장 먼저 이 병원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병원이 아니라 여기를 왔다면..

왼쪽 목이 부풀어 올라 물이 찬 것처럼 물렁거리는 느낌이었다.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주변의 얘기에 갑상선으로 유명하다는 김용기내과를 갔었다. 주사를 통해 물을 빼는 시술을 했고 조금 남은 듯 한 느낌은 있었지만 괜찮은 것 같았다.

3일쯤 후 더 크게 부풀어 올랐고 터지기 직전의 물 풍선 같았다. 이샘병원을 방문했고 김용기내과와 마찬가지로 주사로 물을 빼는 도중 피가 나온다며 시술을 멈췄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듣고 다음 날 바로 백병원을 갔다.

목은 더 부풀었고 심한 통증으로 눕지도 못했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 백병원에서는 수술을 얘기했다. 어깨까지 부풀어 오른 부분을 절제하고 안에 있는 물혹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당장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영상의학과에 대기가 많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선생님은 금요일에 다시 와서 CT를 찍고 빠르면 월요일에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눈물이 정말.. 펑펑 울었다.

그때 선생님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얘기해 주셨다. 비수술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금요일에 병원에 왔다.

무서웠다. 시술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백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야 했다. 원장선생님께서 보시고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부운 상태를 보시고 바로 시술해야겠다고, 제 기억에는 그날 시술은 없고 진료만 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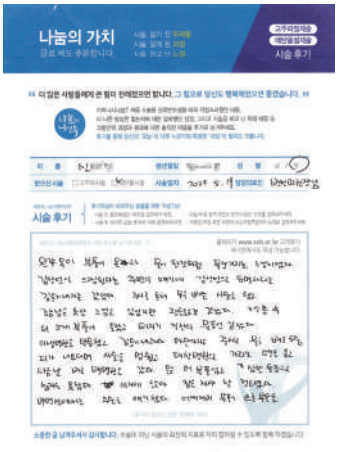
시술도 정말 간단했고 통증도 없었다. 시술 후에 조금은 부어 있었지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살 것 같았다. 또 다시 재발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시술 결과는 아주 좋았다. 말끔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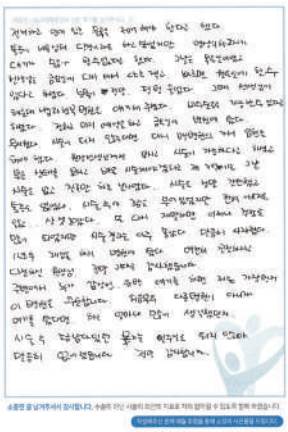
1년 후 재검을 하러 병원에 왔다.
여전히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원장님.
정말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갑상선, 유방 얘기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병원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병원이 아니라 여기를 왔다면..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던지...

시술 후 조금 남아있던 붓기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스물 다섯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25

20년간 장학금을 월급쟁이 곗돈으로?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넉넉해지는 것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이 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럼 20년이면? 변해도 너무 변했을라나? 기억까지 변하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2003년도 즈음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게 2002년이니 직장인 2년차였을 무렵이다. 졸업과 동시에 대학 졸업동기 형,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계모임을 하고 있었고, 계모임 이름도 '배신을 잘 한다'는 농담을 섞어서 '배신자클럽'으로 지었다. 졸업동기지만 나이도 학번도 다양했다. 96학번인 나를 기준으로 하자면 95학번도 있고 99학번도 있고, 3~4살 많은 형들, 1살 터울 형들 그리고 동갑내기 4명 포함 총 9명이다. 우린 모두 남자였다.

지금의 MZ세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겠지만, 그 당시 우리들도 나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입이었다. 9명은 1개월마다 모임을 가졌지만 서로 바쁜 일상 탓에 9명이 다 모이기는 쉽지 않았고, 적게는 4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많으면 9명이 다 만날 때도 있었다. 직장이 병원이고, 당직이 있는 직업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중소병원(약 100병상)엔 대부분 응급실이 있었다. 야간진료가 있다는 말은 밤에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통해 판독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병원 야간엔 응급실 인원 외에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1명씩 당직을 섰다. 우린 모두 방사선사였다.

내가 다닌 중소병원은 실장님 포함해서 4명이 근무했다. 당시 실장님은 1주일에 평일 당직을 1개 섰고, 나머지 3명이 한 달에 9개씩 27일을 책임졌다. 다른 동기가 근무하는 병원은 실장님이 아예 당직을 서지 않는다. 그럼 한 달에 10개 당직을 서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열악한 근무조건이었는데 그 당시엔 몰랐다.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급여다. 당직비 빼면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었고, 당직비 9~10개를 포함하면 겨우 110만원을 넘겼다. 우리들의 사회 첫 월급은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었다.

이런 급여는 내보다 더 앞선 선배 직장인들에겐 '라떼는 절반도 못 받았다.'라는 후일담으로 연결되고, 지금의 세대에겐 '실화임?'이라는 의문을 남기겠지만,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당직 개수와 대략적인 급여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른 눈으로 봅니다.
> _박예진《버지니아 울프, 문장의 기억》(센텐스)

어느 날, 이 모임에서 리더 격을 맡고 있는 형이 제안을 한다. 우리 계돈으로 1년에 한번은 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어떻겠냐는 것이다. 다들 어안이 벙벙했다.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 등 좋은 직장에 일찌감치 취업해서 겸임교수나 외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하는지 의문이었다. 그것도 박봉인 급여를 받고 있고, 학교생활도 평범했고, 그야말로 보통의 방사선사인 우리가? 왜? 라는 반문의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형의 눈은 정확했다.

>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 나누어서 넉넉해지는 것이다.
> _신준모《어떤 하루》(프롬북스)

의견을 제안한 형은 나름 학교생활에서 대의원장(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질 않는다.)도 했을 만큼 학과 생활엔 진심이었던 형이다. 그 형 말로는 우리 학교 방사선학과는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와 학과인데, 그 흔한 장학금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재학생들은 성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만 있지 방사선학과만의 특별한 장학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곗돈에서 조금씩 모아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주자고 한다. 우리 같은 중소병원(9명중 7명이 중소병원 2명은 대형병원)에 다니는 보통의 방사선사들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조금씩 알려지다 보면 학교차원에서도, 총동문회에서도 깨닫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는 뜻이다. 꼭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단다. 나누어서 넉넉해지는 마음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그 형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우린 선한 마음에 자연스레 동의를 했다. 형은 며칠 뒤 학교 측에 정식을 의견을 전달했고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학과에서 1명을 공정하게 선발해주었고,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다. 그렇게 2004년부터 매년 2학기가 개강하는 즈음에 우린 계돈을 털어 소소한 장학금을 전달했고, 한 해 두 해 쌓여져 강산이 두 번째 바뀌었다.

> 나무의 우듬지가 아래 가지들을 다스려 가면서
> 하늘을 향해 뻗어 가듯,
>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 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_우종영《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앳워크)

'우듬지'는 나무줄기의 맨 꼭대기 부분으로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갈지를 결정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들의 모습이 학과의 방향에 도움이 되고, 하나 둘씩 장학금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어깨너머로 들었다. 나무의 우듬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뻗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가을 2학기 때 있을 21회 배클장학금 전달이 끝이다. 그 마지막 한 번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 학교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년 전 처음 모인자리에서 딱 20년만 해보자고 했던 게 정말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만 스무 해인 올해 스물한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끝으로 길고도 길었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감사패를 대표로 수상 받은 형은 이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고, 저마다 그동안의 말은 안했지만 모두들 수고했다고 칭찬의 댓글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마지막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곗돈을 모으자고 이야기했다. 나는 총무고 20년간 힘들게 비우고 채우길 반복했던 통장의 잔고를 조금씩 채워나가야 한다. 우리도 곗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지! 하며 말이다.



◀ 어렵게 구한
20여년 전
장학금 전달 사진

아쉽게도
오타가 있는 감사패
방학회(X) → 장학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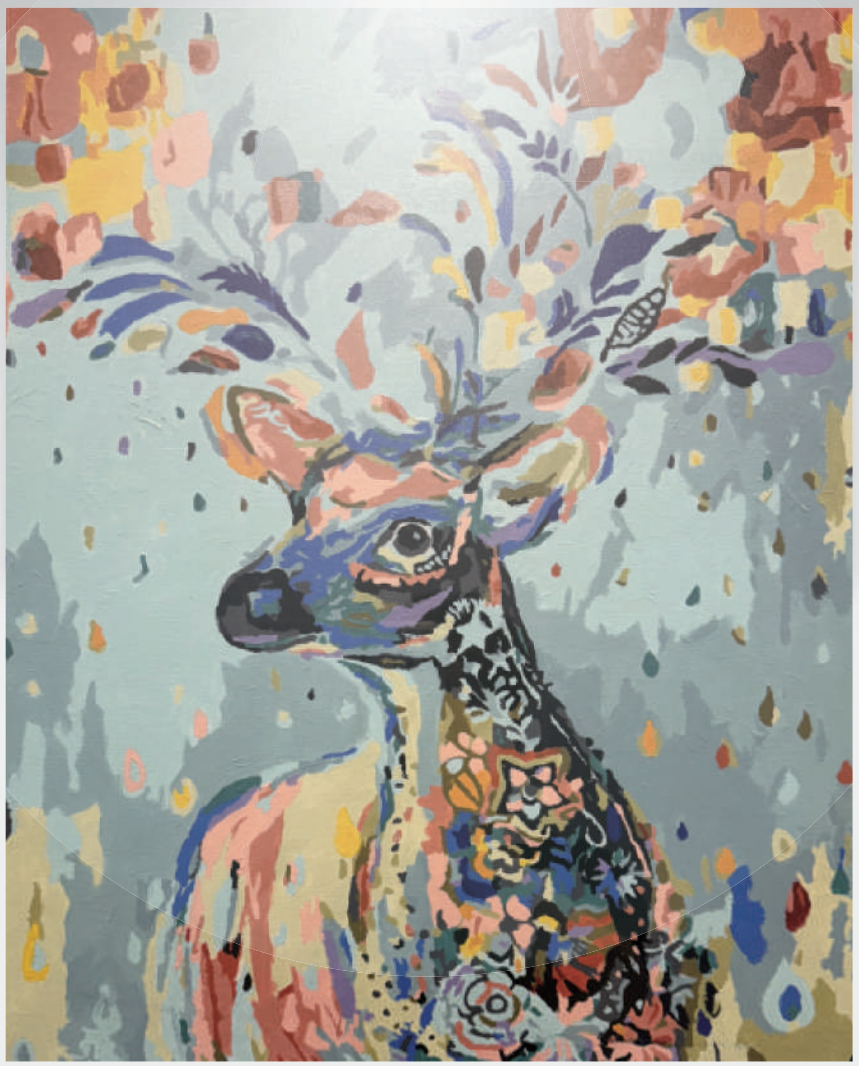
테라스 거리

정○○ 님

늘 우울하고, 슬펐던 저의 입원생활 중에
그림 색칠 시간은, 저에게 유일한 위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선생님과 환우들과의 소통은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또한 색감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어느새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잘 것 없는 그림을 전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의 사슴

조○○ 님

평소 캐릭터 그림을 창작해서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꽃사슴은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행운의 사슴을 그리면서
입원할 때부터 줄곧 제 옆에서 간호해 주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환우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해변에서의 휴식

정○○ 님

유화그림은 제가 즐겼던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 출장이 잦았던 저는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
남국의 바닷가를 잊지 못하여 다시 서투른 손으로 붓을 잡아봅니다.

**파도의 역동성과 늘어진 야자수, 한가로운 나룻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광은
재활기간 동안 지친 제게 멋진 휴식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꼭 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